

유관기관 새로운 홍보소재 개발에 주력해야

1. 머리말

화재는 급변하는 산업화 추세와 에너지원의 다양화로 인하여 매년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재해는 크게 자연적인 재해와 인위적인 재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는 풍수해, 낙뢰, 지진 등 천재지변이라고 일컫는 사고가 여기에 속하고, 후자에는 우리 인간이 일정한 구조물 속에서 생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주의와 방심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가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각종 재해는 국민의 위기 관리의식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한 것이나 대부분의 국민 성향이 투자에 대한 직접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항구적인 재해 방지 대책에 자연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 것이다.

화재 또한 인간이 불과 더불어 살면서 문명의 이기를 향유할 줄은



최재홍
(인천직할시 소방본부장)

알아도 이를 어떻게 제어해야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안전관리의식을 체념하다싶이 하면서 무감각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화재가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화마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스스로 예방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화재예방 요령과 통보대책에 관하여 살펴보기

로 하겠다.

2. 1988년 화재 분석

지난 한해동안의 화재발생 총량은 1만2천5백7건으로써 예년에 비해 23%가 증가한 수치이며 인명피해 중 사망의 경우는 29% 증가한 4백14명에 달했고 재산피해는 무려 1백35%가 증가한 3백5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원인별로는 전기결함으로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30%인 3천8백3건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이 담배, 어린이 불량난, 방화, 유류취급부주의 등의 순으로 각각 발생하였다.

발화장소별로는 주택에서 전체화재의 30%인 3천7백69건이 발생하여 심각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이 공장, 차량, 점포, 음식점, 사업장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계절별로는 겨울, 봄, 여름, 가을의 순으로 발생, 화기취급이 많은 겨울과 봄철사이에서 60% 이상이 발생되었

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3. 화재예방 대책

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

(1) 주택화재 예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는 매년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화재에서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수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지난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에 전국 초중학생 8천9백32개교 5백68만4천7백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용 소화기 비치가정은 18%에 불과하고, 전기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후 플러그 뽑기 89%, 문어발식 콘센트 미사용 75%, 규격휴즈사용 90%, 규격전선 사용 8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스시설의 사용에 있어서는 용기의 안전관리 85%, 사용후 밸브잠금 57%를 각각 점하고 있어 가스 사용후 중간밸브의 잠금이 아직까지 생활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석유난로 사용에 있어서는 자동 소화장치가 부착된 난로사용 가정이 47%밖에 되지 않고 있고 불을 붙인 채 이동하거나 기름을 넣는 가정이 15%를 차지하고 있어 석유난로의

안전취급이 정착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택화재 예방요령에 대하여 살펴보자.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매년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3천건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소화기를 비치한 가정이 18%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위수치의 백분율에 소방방법상 소화기 비치 의무장소인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자율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가정은 10%에 불과하다. 현명하고 지혜있는 가정에서는 소방법에서의 규제를 불문하고 자기 가정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3만원 정도 투자해서 가정용 소화기를 비치해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규격휴즈 및 전선을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뽑고, 특히 재래식 주택의 경우 전기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거연료의 가스화로 도시 농촌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가스의 취급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주민들이나 자녀들이 안전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한 나머지 우리 주위에서 가스폭발 사고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스배관의 누설 여부를 1개월에 한번 내지 두번정도는 비누물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용후에는 반드시 중간밸브까지 잠그도록 하며, 용기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주위에 가연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의 적재보관을 금하고 화재 등을



대비해서 욕조에 물을 채워 놓거나 별도의 물통을 마련해 두는 것이 우리집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특수장소 화재예방

호텔, 시장, 사업장, 음식점 등의 장소에는 기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방화관리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100%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리를 요하는 개소가 있을 때는 지체 말고 가까운 정비업소 또는 소방관서에 설치된 소방시설고장 신고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히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자체방화관리 체제를 재정비 보완하는 동시 방화관리자를 정점으로 한 소방훈련을 종목별로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전 종사원이 소방요원화 되도록 부단한 훈련을 연마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소방관서에서 해야 할 사항

소방관서에서는 불이 많이 나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하여 전소방력을 집중투입하는 한편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첫째,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한달 동안을 대국민 화재경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중에 불조심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홍보계몽활동에 임하고 있다.

둘째, 특수화재 취약시설인 호텔 등 3천9백25개소에 대하여 합동정밀 점검과 간부책임제 운영으로 대형화재 절대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겨울철 유류화재의 대표적인 사고원인이 되고 있는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을 억제키 위해 난로 비치시기인 10월말에서 11월중순까지를 지도계몽기간으로 정하여 집중 계도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전업소를 시·군 화재예방조례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소방홍보 확대방안

가. 소방홍보 전담기구 확보

우리나라의 화재추세도 이제는 선진화 경향으로 선화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 방화안전 의식수준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 소방홍보는 사실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전래에 의한 소재를 바탕으로 안이하게 운영해 왔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5천불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내무부, 각 시도소방본부를 위시해서 일선 소방서에도 소방홍보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현재 서울소방본부에 유일한 홍보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기반으로 우선 본부 단위만이라도 계 단위의 홍보조직이 하루빨리 신설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 직능단체별 소방홍보체제 유지

중앙단위에서는 내무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직능단체로 구성된 소방홍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일선 지방단위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방유관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여러단체가 있으나 예산관계상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타워링과 같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명화가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제작보급 될 수 있는 기술과 재원의 뒷바침이 있어야 하겠다. 영화제작진에서도 이런 차원에서의 국민계몽영화 보급에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각 직능단체에서는 지금까지의 형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홍보소재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국민 방화의식을 일깨우는 홍보에 인색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 전력화에 다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불은 인간이 만들어 낸 최대의 걸작품이다. 그러나 늘 이것의 두려움 속에서 매년 4백명 이상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있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각자가 소방관이라는 개인적,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자기 가정과 직장을 몸소 지킬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대부분의 화재사고가 자기 방관과 무관심에서 일어나는 인재로써 전체화재의 87%를 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민의 자각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나라의 속담을 상기시키기 이전에 평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화재예방이 제2의 수출전략 사업임을 다같이 명심하여야 하겠다. ☹